**[비목가사]**

초연이 쓸고간 깊은 계곡 양지녘에
비바람 긴세월로 이름모를 비목이여
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온 하늘가
그리워 마디마디 이끼되어 맺혔네

궁노루 산울림 달빛타고 흐르는 밤
홀로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울어지친 비목이여
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
서러움 알알이 돌이되어 쌓였네

애창가곡 "비목(碑木)"에 대하여 \*

때는 1964년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 계곡

비무장지대(평화의댐 북방 14km 휴전선 부근)를 순찰하던

한 청년장교 한명희(당시 25세.전 서울시립대 음악학과 교수) 소위는

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이끼 낀 무명용사의 돌무덤 하나를 만난다.

6.25때 숨진 어느 무명 용사의 무덤인 듯 옆에는

녹슨 철모가 딩굴고 있었고 무덤 머리의 십자가 비목(碑木) 은

썩어 금세라도 무너질 듯했다.

녹슨 철모, 이끼 덮인 돌무덤,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새 하얀 산목련,

화약 냄새가 쓸고 간 깊은 계곡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.

그는 돌무덤의 주인이 자신과 같은 젊은이였을 거라는 깊은 애상에 잠긴다.

4년 뒤 당시 동양방송(TBC) PD로 일하던 한명희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

작곡가 장일남씨(한양대 음대 명예교수, 2006년9월 별세)가

가곡에 쓸 가사 하나를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.

돌무덤과 비목의 잔상이 가슴 속에 맺혀 있던 한씨는

즉시 펜을 들고 가사를 써 내려갔다.

조국을 위해 산화한 젊은 넋을 기리는 "비목"의 가사는

이렇게 탄생되었고 이 노래는 70년대 중반부터

"가고파", "그리운 금강산"과 더불어 한국인의 3대 애창곡으로

널리 불려지기 시작했다.